이달의 어항 ⑯ – 경남 통영시 욕지면 욕지항

‘알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 섬’ 욕지도

뭍에는 알려지지 않은 거북모양의 조용한 어항

섬 여행 그것은 일종의 로망이다. 여행이라는 단어가 주는 막연한 설래임이나 동경 이상으로 예기치 못한 일기에 따라 여행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낯선 곳에서의 하룻밤이라는 두근거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떠나자! 의욕의 섬 욕지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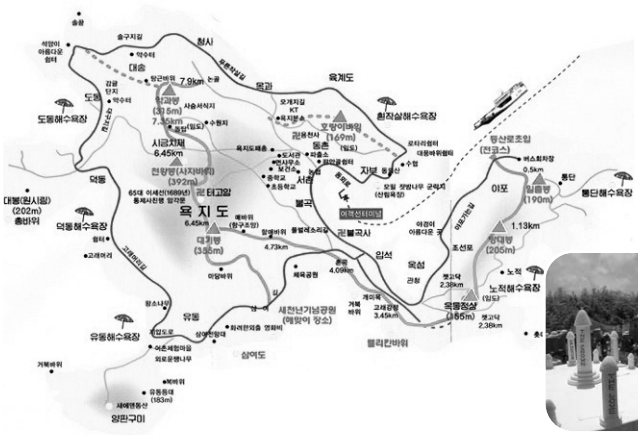
욕지도는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에 속하는 섬으로서 통영항에서 남쪽으로 30㎞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두미도(頭尾島) · 상노대도(上老大島) · 하노대도(下老大島) · 우도(牛島) · 연화도(蓮花島) 등 9개의 유인도와 30개의 무인도가 있는 욕지면의 도서중 가장 큰 섬이다. 욕지도는 해안절벽과 기암괴석이 아주 멋진 섬으로 주변의 작은 섬들과 어우러져 멋진 해안풍광을 자랑한다. 또한 섬을 한 바퀴 도는 해안도로가 만들어져 있어 이 도로를 따라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또 섬안에 천황산이 있어 이산에 오르면 사방이 탁 트인 시원한 전망과 함께 욕지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지역 특산물로 고구마가 생산되며, 감성돔을 비롯한 어종이 풍부하고, 연안에서는 김과 굴 양식이 활발하다. 북쪽의 덕동해수욕장은 300m에 걸쳐 펼쳐져 있는 까만 몽돌밭과 맑은 물로 인해 여름이면 해수욕을 겸한 낚시 인파로 북적인다.

욕지도의 지명에 관한 유래로는 여러 갈래의 설이 있다.

먼저 녹도(鹿島)라 일컬었다는 설인데 이는 삼도수군통제영이 고성현 춘원면에 주둔할 때 조정에 진상할 목적으로 직접 사슴사육을 하였고 이에 1888년 개척자들이 처음으로 입도 하였을 때 수목이 울창하고 가시덤불과 온갖 약초가 뒤엉킨 골짜기마다 사슴들이 뛰어다녔다는 증언을 토대로 일제 때 만들어진 이름이라는 설이다.

또한 100여 년 전에 한 노승이 시자승을 데리고 연화도의 상봉에 올랐는데, 시자승이 도에 대해 묻자 ‘욕지도 관세존도(欲知島觀世尊島)’라고 답하며 이 섬을 가리킨 데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하며, 그 외에도 이름에 관한 유래설이 몇 가지 더 전해진다.



♣ 주변관광지

메밀잣밤나무숲은 천연기념물 343호로 동항마을 뒷산에 위치한 상록수림이다.

숲을 구성하고 있는 식물들로는 가장 대표적인 모밀잣밤나무 100여 그루 외에 항상 푸르른 나무인 사스레피나무, 보리밥나무, 팔손이 등과 넓은 잎이 봄에 돋았다가 가을에 떨어지는 작살, 때죽나무, 떡윤노리 등이 있고, 보기드문 식물인 해변싸리, 애기등, 민땅비사리가 있으며 소엽맥문동, 향등골나무, 마, 단풍마, 산박하, 애기나리 등의 풀들이 자라고 있다. 이곳 모밀잣밤나무숲은 물고기를 보호하고 숲 가까이로 유인하는 어부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동마을에서 20분을 걸어 들어가면 새에덴동산이라는 기이한 건축물이 여행객들을 맞는다. 11년 전 세상과 인연을 끊고 정착한 두 모녀가 맨손으로 건설한 믿음의 동산. 돌가루 반죽 조각으로 ‘야곱의 우물’ 등 성경에 등장하는 17개 장면을 재현했다.

♣ 먹거리

욕지도는 한류와 난류가 합류하는 지점으로 볼락, 감성돔, 농어, 소라, 전복 등의 수산물이 풍부하고 감귤과 고구마가 특산물로 유명하다. 특히 감귤은 우리나라의 욕지도와 제주도에서만 생산되고 있으며, 고구마의 달콤한 맛은 입소문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얼마전 TV 방송프로그램에 소개된 유명한 해물짬뽕도 꼭 먹어봐야할 먹거리 중에 하나이다.

♣ 찾아오는 길

– 통영여객선터미널 이용 안내 :
(055) 641-6181, 642-0116~7
타는곳 : 통영 여객선터미널
선 명 : 욕지고속카훼리호

– 삼덕여객선터미널 이용 안내
타는곳 : 산양읍 삼덕항 터미널
선 명 : 욕지 2호(055)641-3560),
욕지금룡호(055) 643-8973